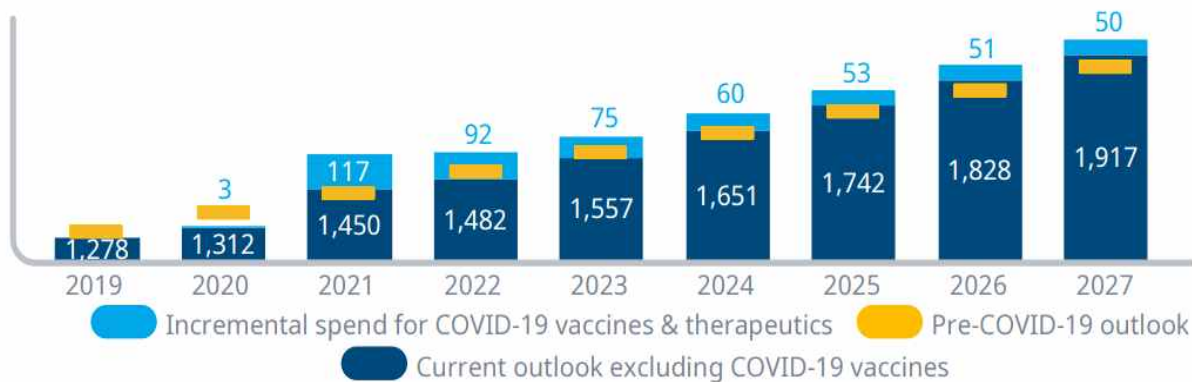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의약품 시장 2027년 1조 9천억 달러 전망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□ 글로벌 의약품 시장 컨설팅 기관인 IQVIA가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,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2022년 1조 4,820억 달러에서 연평균 3~6% 증가세로 2027년에는 1조 9,1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이 규모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는 제외한 것으로,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시장은 2021년 1,170억 달러, 2022년 920억 달러에 달했으며, 이후 점차 시장이 줄면서 2027년에는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

□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2017년 4,650억 달러에서 2022년 6,29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, 향후 5년간 25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되면서 2027년에는 7,6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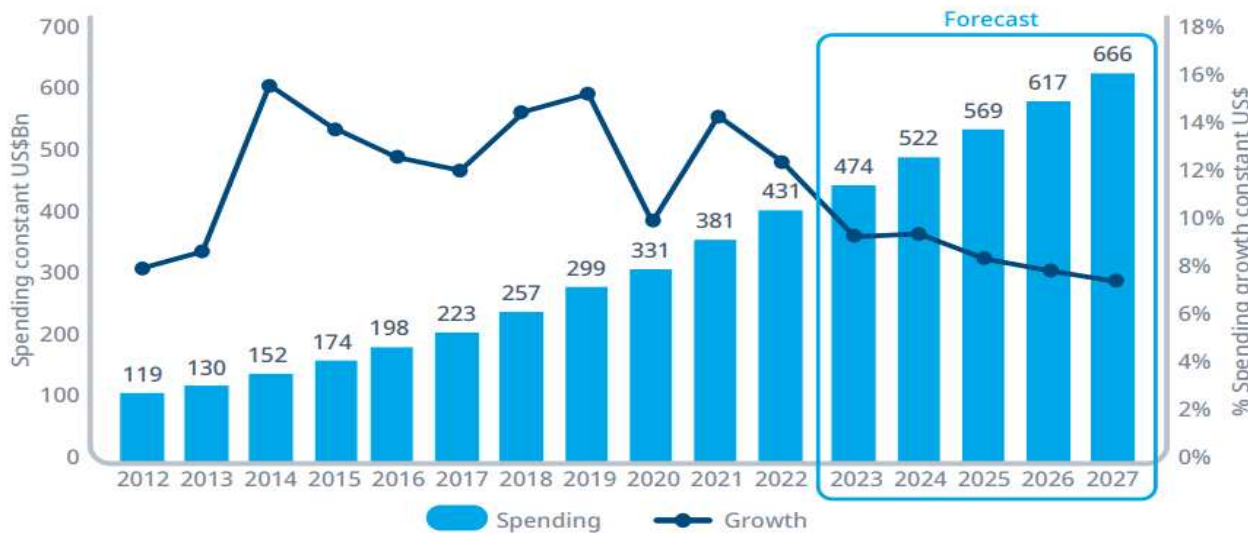
□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국가별로 성장률에 있어 다양하나 전체적으로 연평균 5.5~8.5%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.

- 특징적인 국가를 보면, 한국이 4.5~7.5% 인도가 7.5~10.5% 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은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-2~1%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- 중국은 2013년 930억 달러에서 2022년 1,6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유지하고 있음.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나 향후 점차 회복하면서 향후 5년간 2~5% 성장세로 2027년에는 1,9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기술별로 보면,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7.5~10.5% 성장세로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- 바이오의약품은 2022년 기준 4,310억 달러 규모에서 향후 5년간 2,350억 달러가 증가해 2027년에는 6,6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35% 비중임.



□ 질환별로 보면, 향후 5년간의 성장세에 크게 기여할 분야는 항암제, 면역치료제, 비만치료제임.

- 항암제는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, 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됨. 항암제는 2022년 1,930억 달러에서 연평균 13~16% 증가세로 2027년에는 3,770억 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.
- 아토피치료제 및 천식치료제 등의 성장에 힘입어 면역치료제는 2022년 1,430억 달러에서 연평균 3~6% 증가세로 2027년에는 1,7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 3~6% 라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, 선진국에서 휴미라를 포함해 다수의 면역치료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향후 5년간 면역치료제 시장의 50% 이상이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.
- 항암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환별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5% 전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만치료제는 향후 5년간 10~13%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0년 25억 달러에서 2022년 100억 달러로 급성장 하였으며,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27년에는 최소 170억 달러에서 최대 1,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<참고자료> Global Use of Medicines 2023, outlook to 2027, IQVIA institute, 2023.1